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외 6월 동향

2024.06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Aligning the disclosure committee in the era of disclosure」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 ▶ 공시는 과거부터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공시 환경의 진화에 따라 세 가지 특징이 있음
 - 규제당국이 신규 공시를 채택·제안하는 빈도 및 속도
 - 재무 정보를 넘어서는 공시 범위의 확대와 이러한 공시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
 - 자발적 공시의 확산과 이를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기업, 보고의 표준화 부재 등
- ▶ 공시위원회 재구성시 고려사항
 - 공식적인 공시위원회 현장 유지 및 개정 : 공시위원회 현장을 개정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현장에 명시된 공시감독의 책임 내용과 일치 필요
 - 공시위원회 위원(장) 재평가: 위원장은 재무 또는 법률 관련자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시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타 영역(지속가능성, 사이버, 기술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 가능
 - 위원회 운영 절차 강화: 감독당국의 공시내역 조사에 대비하여 위원회 운영 절차의 강화 필요
 - 공시사항목록: 기업의 공시 통제 및 절차 개선을 위해 약점과 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
 - 회의 안건: 제출 서류 검토 이외 여러 주제에 대한 충분한 시간 확보
 - 체크리스트: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는 공시 및 통제 사항의 추적에 유용
 - 문서화: 공시통제 및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를 대비한 강력한 도구
- ▶ 감사위원회는 공시위원회가 현 공시환경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아래 질문을 통해 검토 가능함

다운로드



QR 코드



공시위원회 재구성 관련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 공시위원회가 없다면 설치가 필요한가?
- 공시위원회 현장이 있는가? 있다면 담당 공시의 범위와 깊이를 반영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유관부서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는가?
- 공시위원회 안건은 관련 주제를 모두 반영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공시심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문서화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하는가?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Dipti Gulati (Deloitte US CEO 회계·감사자문본부파트너), FEI Daily 기고문, 「Generative AI's Potential to Revolutionize Finance」

생성형 AI, 금융혁신을 촉발하다

- ▶ 생성형 AI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생성 능력이 있어 전문가의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매출성장의 기회 창출에 유용함
- ▶ 생성형 AI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하므로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생성형 AI 전략을 설계해야 함
- ▶ 재무 담당임원(CFO)의 역할 및 생성형 AI 활용방안

| 구분 | 내용 |
|-----|---|
| 관리자 | • 질의 응답, 지침요약, 규제·규정 준수 여부 판단 |
| 운영자 | • 과거 회의내용 분석을 통한 핵심주제 식별, 다양한 시나리오 계획, 투자자 질의사항을 예측하여 분기별 실적 발표 준비 |
| 전략가 | • 장기투자 또는 M&A와 관련된 이사회 이해관계자 대상 발표시 전략적 거시경제 발전 예측,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 제공 가능 |
| 촉매제 | •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모니터링·평가 지원, 기업가치 개발 거래 평가, 실사 실행, 자본 최적화 기회의 식별 등 최적의 전략 결정 가능 |

- ▶ 생성형 AI 관련 주요 고려사항

| | |
|--------------|--|
| 인재 | • 딜로이트 서베이에 참여한 CFO의 60%는 향후 2년간 생성형 AI 기술에 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함 |
| 사이버보안 | •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생성형 AI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이버 리스크가 초래될 수 있음 |
| 신뢰성 | •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프레임워크를 갖추면 리스크관리, 사용자 신뢰도 향상, AI 사용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기 위한 윤리적 보호장치 개발에 도움이 됨 |

다운로드

Generative AI's Potential to Revolutionize Finance

Generative AI has the potential to generate tremendous value for the finance function and broader enterprise.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6.14 (금) 금융감독원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함

1. 수익인식 회계처리

-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
-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수익기준 (K-IFRS 제 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2. 비시장성 자산평가

- (대상업종) 쏠 업종
- (선정기준)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고,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3. 특수관계자 거래 및 회계처리

- (대상업종) 쏠 업종
- (선정기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익기준서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관련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4. 가상자산 회계처리

- (대상업종) 쏠 업종
- (선정기준) 무형자산, 관련 수익 증감 및 주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 기준서(K-IFRS 제 1115호 등)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5.31 (금) 금융감독원

'23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 ▶ '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2,537사)로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3%(1,544사)로 전기(97.5%, 1,472사)와 유사한 수준임

다운로드



QR 코드



1. 재무제표 감사의견

- '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02사)의 97.5%(2,537사)로 예년 수준을 유지
- '적정 의견'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98사(3.9%) 포함됨
- '비적정' 의견(65사)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1,587사)의 97.3%(1,544사)로 전기(97.5%)와 유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43사(2.7%)로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26사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 17사로 구성
- 부적정(17사) 상장법인의 경우 '손상·공정가치 평가·대손 설정'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나 '자금거래'와 관련된 부정예방·적발 통제 등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
-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단위: 사, %)

|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 |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 | | 적정 |
|-----------------------|------------|----------------|-----------|---------|-----------|
| | | 비적정 | 의견거절 | 한정 | |
| 내부회계 부적정 | 17 (39.5) | 6 (14.0) | 3 (7.0) | 3 (7.0) | 11 (25.5) |
| 내부회계 의견거절 | 26 (60.5) | 23 (53.5) | 23 (53.5) | - (-) | 3 (7.0) |
| 합계 | 43 (100.0) | 29 (67.5) | 26 (60.5) | 3 (7.0) | 14 (32.5) |

*괄호 안은 전체 비적정 상장법인(43사) 중 차지하는 비중

3. 회사 유의사항

- ① 재무제표 비적정 : 감사대비 충실히 자료를 준비
- ② 내부회계 비적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있게 운영
- ③ 경영진·감사기구 :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계획을 공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5.27 (월) 금융감독원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 ▶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대한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올해 1분기 중 은행별 이행계획을 점검함
- ▶ 점검대상은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16개)으로 총 24개사임
- ▶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1.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 (업무총괄자 지위/임면/평가) 대부분의 은행이 업무총괄자를 부서장급 이상으로 지정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지 이사회 사전보고 및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
 - 상반기 9사, 하반기 9사, 미정 2사, 기완료 4사
- (지원조직 인력) 대체로 인력 규모는 크지 않음 (업무총괄자 외 2명 수준으로 계획)
 - 상반기 5사, 하반기 6사, 연내 1사, '25.1분기 1사, 기완료 11사

2.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 (종합적 승계계획) 대부분 CEO 후보군 관리부터 선정까지 포괄하는 승계계획의 구체화·문서화 진행
 - 상반기 5사, 하반기 9사, 연중 2사, '25.1분기 2사, 기완료 6사
- (CEO 자격요건)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
 - 상반기 4사, 하반기 12사, 연내 2사, '25.1분기 2사, 기완료 4사

3.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 (Board Skill Matrix) 쉐 은행이 BSM(역량진단표) 도입 예정, 실질적 활용 위한 구체화 필요
 - 상반기 5사, 하반기 13사, 연내 1사, '25.1분기 2사, 기완료 3사

4.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 (평가체계 점검) 쉐 은행이 주기적인 평가절차·체계 적정성 점검 예정이며 일부는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검토
 - 상반기 5사, 하반기 12사, 연내 1사, '25.1분기 2사, 미정 1사, 기완료 3사

- ▶ 금융감독원은 금년도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24.5.23.~)을 통해 이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향후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감사업무 수행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5.24 (금)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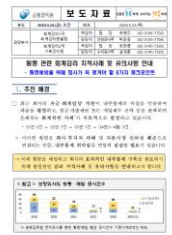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 금융감독원은 최근 횡령에 따른 회계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횡령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
- ▶ 횡령 관련 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충분하고 실질적인 승인절차가 미비하였으며, 특정 인원이 장기간 자금업무와 회계업무를 함께 담당함
 -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은 적발 전 5년 간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장부와 계좌 사이 현금잔액 차이를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함
 - (B사) 乙 재무팀장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개인 주식투자에 유용한 뒤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함
 - (C사) 경리팀 丙부장은 적발 전 11년 간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을 매출채권 미회수액으로 위장함
- ▶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승인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개설, 출금, 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 필요 • 출금, 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통제절차 마련 |
| 업무분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업무와 회계업무를 분리하는 업무분장 필요 |
| 업무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 담당자 주기적 순환 및 교체 |
| 잔고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및 계좌잔고 수시 점검 • 회사장부와 잔고증명서 및 펌뱅킹 화면 등 외부 증빙 반드시 대사 |
| 보관·승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인감, OTP 따위의 중요한 물품은 서로 다른 인원이 분리하여 보관 • 사용 시 관리자의 승인절차 구비 |
| 내부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담당이사 아닌 독립된 내부감사 임명 • 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수행할 필요 |

- ▶ 금융감독원은 '23회계연도 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한국세무사회, 7월부터 복식부기 전면 시행... '회계 투명성 제고' [국세신문]
- 현대백, 금감원 XBRL 공시 우수법인 선정... '회계 투명성 인정' [뉴스1]
- 한공회, '싱크탱크' 회계정책연구원 설립 [조선비즈]
- 금감원,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IFRS17 정착 방안 논의 [아주경제]
- 금감원,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 감사 품질 차이 커 ... 개선 필요 [뉴스1]
- 금감원, 운용사 사익추구 지속 적발... '내부통제 강화해야' [연합뉴스]



부정행위방지

- 난무하는 자금 횡령... 금감원, 내부통제 미비 기업 엄중 조치 [아주경제]
- 감사의견 '비적정', 받은 곳이 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 불황에 기업들 분식회계 우려도 증가 [뉴스토마토]



규제 동향

-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 업권·규모별 제출시기 차등화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표 [법률신문]
-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 일부 은행 미흡... 금감원 '보완 필요' [머니투데이]
- 금융위,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사 내부업무에 외부망 이용 가능 [비즈니스포스트]
- 금감원, '횡령 예방 위해 자금-회계담당자 분리, 업무 주기적 교체 등 권장' [이투데이]
-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 공시 설명회' 개최... 개정 공시서식 안내 [연합뉴스]
- 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 회계법인에 '품질 최우선 외부감사 환경 조성' 당부 [이투데이]
- '내부통제 실패 예방'... 금융위, 금융복합기업 위험관리 평가 비중 상향 [뉴스1]



M&A

- M&A 이후 시너지 효과 정량평가해서 공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매일경제]
- 상장사 절반 '이사 충실의무 확대되면 M&A 재검토 또는 취소' [KBS 뉴스]
- AI 시대 고도화된 공격 막자... 사이버보안 기업 M&A 활발 [조선비즈]
- 수도권 저축銀 M&A 길 열리나... 잠재적 인수자 매물은 [딜사이트]
- 기보,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 신설한다 [헤럴드경제]
- 공공망 재편 과정에서 해외 M&A 기회 있을 것 [매일경제]
- M&A규제 완화 10개월 지났는데... 저축은행 매물 쌓여 [동아일보]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밸류업 방안 담긴다 [KBS 뉴스]
- 주요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 7.3%p 하락... '집중투표제 도입' 4.2%뿐 [경향신문]
- 이복현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고쳐야... 면책조항은 필요' [디지털타임스]
- 후진적 지배구조 개혁, 상법개정이 첫 단추 [헤럴드경제]
- '거수기' 이사회에 메스... 은행 지배구조 개편 속도 낸다 [조선비즈]
- 밸류업, 지배구조가 걸림돌... 주주에 충실의무 반영해야 [서울경제]
- 기업지배구조 지표 준수율, 포스코홀딩스·KT&G... 100% 달성 [소셜밸류]
- 韓기업지배구조, 총수일가 중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NATE]



이사회·감사위원회

- 은행 이사회, IT ESG 소비자 여성 전문가 '태부족'... 경영진 경제 한계 [한겨레]
- 아시아나항공,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이사회 독립성 강화 [넘버스]
- 이사회 '성 다양성' 의무화...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만 짚끔 늘어 [한겨레]
- 감사위원회포럼, 'SI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조세일보]
- 상장사 이사회 '밸류업 관련 이사회 참여 수준은 기업이 결정해야' [조선비즈]
- EU, 세계 첫 'AI법' 확정... 이사회 최종 승인 [지디넷코리아]
- 금감원, 이번 주부터 은행 이사회 릴레이 면담... 7월 의장 간담회 개최 [조선비즈]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이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6호' 발간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새 조직체제 도입... 사업부문 4개로 통합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농산촌 지역 사회공헌 확대 [이슈인팩트]
- 'MZ 세대 4%만 생성형 AI 교육 및 역량 강화중' 한국 딜로이트 그룹 [CIO KOREA]
-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공시 의무화 대응 세미나 내달 5일 개최 [이투데이]
- 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성료 [파이낸셜 뉴스]
- 딜로이트 안진, 디피코 회생인가 '일등공신' [헤럴드경제]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개최 결과

| 구분 | 내용 | | |
|---------------|---|---|--|
| 일시 | 2024년 6월 3일 (월) 14:00 ~ 17:20 | | |
| 장소 |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at IFC (3F) | | |
| 내용 | 구분 | 내용 | 담당 |
| | 14:00 ~ 14:05 | Opening Remarks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홍중성 총괄대표 |
| | 14:05 ~ 14:30 | 세션1. 기초강연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내부통제 중심으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 | 14:30 ~ 14:55 | 세션2.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14:55 ~ 15:05 | Break Time | |
| | 15:05 ~ 15:30 | 세션3.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 방향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 그룹 권대현 파트너 |
| | 15:30 ~ 15:45 | 세션4.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우먼 인 더 보드룸,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
| | 15:45 ~ 15:55 | Break Time | |
| | 15:55 ~ 16:25 | 세션5. 패널 토론 자금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 좌장 : 유승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토론자 : 1) 김지온 신한금융지주 감사파트장 2)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전 학술상(공로상) 수상자 4)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
| | 16:25 ~ 16:30 | Closing Remarks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 |
| 16:30 ~ 17:20 | 네트워킹 세션 | | |

다시보기

QR 코드



스케치영상

QR 코드



IV. 주요 행사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개최 결과 (계속)

- ▶ 금번 세미나는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을 주제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 감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아젠다로 구성된 총 5개 세션을 선보임
- ▶ 참석자 간 교류의 목적으로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하여, 당면 아젠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로 마무리되었음

다시보기

QR 코드



스케치영상

QR 코드



Session 1.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 (내부통제 중심으로)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 중요 회계기준 위반 상황을 비롯하여 내부통제 감독이 부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처분을 받은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회계처리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함
- ▶ 외관상 상당한 동기를 가진 중요한 거래일수록 철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련자료를 충분히 공개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야 함

Session 2.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을 어떻게 평가할지 방향을 제시함
-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풀을 활용한 사외이사 선임, 내부감사부서와 유기적인 연대와 권한 확보 등을 강조함

IV. 주요 행사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개최 결과 (계속)

Session 3.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향

권대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파트너

- 책무구조도 이행점검 방안으로 부서장 등이 책무기술서와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상 조치 활동 수행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총괄부문에서 모니터링·보고 절차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

다시보기

QR 코드



Session 4.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우먼인더보드룸,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이사회다양성 확대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 전반의 개선,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5대 중점과제로 사이버보안, 전사리스크관리, 재무 및 내부감사 인재, 법률 및 규정 준수, 재무혁신 등을 짚었음

스케치영상

QR 코드



Session 5. 자금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좌장 유승원(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외 토론자 4인

- (금융사)이체지시와자금보관집행의견제구조확립, 고위험 직무담당자에 강화된 내부통제 적용등을 제시함
- 금융기관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펴보고 일반기업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횡령예방책으로 내부회계 감사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은 설치시 혜택(ex 세액공제) 제공등을 제시함
- 외부데이터 조회 통해 신속한 횡령 적발 가능함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 구분 | 내용 |
|----|---|
| 일시 | 상시 |
| 장소 | 온라인 시청 |
| 개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 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 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

신청하기

QR 코드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 구분 | 내용 |
|----|---|
| 일시 | 상시 |
| 장소 | 온라인 시청 |
| 개요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

동영상 보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